다시 푸는 경서

달마 혈맥론(血脈論) ⑧

이 마음 밖에서 부처 찾을 수 없으니

일체 형상과 모습은 다 헛된 것이다

前佛後佛 只傳此心 除此心外
전불후불 지차전심 제차심외
無佛可得 顚倒衆生 不知自心是佛
무불가득 전도중생 부지자심시불
向外馳求 終日忙忙 念佛禮佛
향외치구 종일망망 염불예불
佛在何處 不應作如是等見
불재하처 불응작여시등견
但識自心 心外更無別佛
단식자심 심외경무별불
經云凡所有相 皆是虛妄
경운범소유상 개시허망
又云所在之處 卽爲有佛
우운소재지처 즉위유불
自心是佛 不應將佛禮佛
자심시불 불응장불예불

앞의 부처님이나 뒤의 부처님들이 단지 이 마음을 전했을 뿐이니, 이 마음 밖에서 부처는 찾을 수 없다. 잘못된 중생이 자기 마음이 부처인줄 알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염불, 예불을 하면서 밖을 향해 부처를 찾지만 그 부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견해를 가지지 말라. 단지 자기 마음을 알면 마음 밖에 딴 부처는 없다. 경에 말하기를 '모든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하고, 또 '가는 곳마다 부처가 있다' 하였다.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이니 부처를 지니고 부처에게 절하지 말라.

但是有佛及菩薩相貌
단시유불급보살상모
忽爾現前 切不用禮敬
홀이현전 절불용예경
我心空寂 本無如是相貌
아심공적 본무여시상모
若取相 卽是魔攝 盡落邪道
약취상 즉시마섭 진락사도
若知幻從心起 卽不用禮
약지환종심기 즉불용례
禮者不知 知者不禮 禮被魔攝
예자부지 지자불례 예피마섭
恐學人 不知故 作如是辨
공학인 부지고 작여시변
諸佛如來本相 體上
제불여래본상 체상
都無如是相貌 切須在意
도무여시상모 절수재의
但有異境界 切不用採括
단유이경계 절불용채괄
亦莫生 怖 不要疑惑
역막생파포 불요의혹
我心本來淸淨
아심본래청정
何處 有如許相貌
하처 유여허상모

만일 부처와 보살의 모습이 홀연히 나타나거든 절대로 예경하지 말라. 나의 마음은 공적(空寂)하니 본래 이런 형상은 없는 것이며, 만약 그런 형상을 취하면 곧 마귀에 포섭되어 모두가 삿된 도에 떨어진다. 만일 환상(幻相)이 마음을 따라 일어난 줄을 알면 예경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절하는 이는 알지 못해서이고, 아는 이는 절하지 않는다. 예경하면 곧 마귀에 포섭되는 것이니 행여나 학인(學人)이 알지 못할까 걱정되어 밝혀놓는다. 모든 부처님의 근본 성품 바탕 위에는 도무지 이런 모습이 없으니 꼭 명심하여라. 만일 이상한 경계가 나타나거든 결단코 캐려고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혹심도 내지 말라.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한데 어디에 이런 모습이 있겠는가.

乃至天龍夜叉鬼神 帝釋梵王等相
내지천룡야차귀신 제석범왕등상
亦不用心生敬重 亦莫怕懼
역불용심생경중 역막파구
我心本來空寂 一切相貌 皆是妄相
아심본래공적 일체상모 개시망상
但莫取相 若起佛見
단막취상 약기불견
法見及佛菩薩等相貌而生敬重
법견급불보살등상모이생경중
自墮衆生位中 若欲眞會
자타중생위중 약욕진회
但莫取一切相 卽得更無別語
단막취일체상 즉득갱무별어

나아가 천룡·야차·귀신·제석·범왕 등에도 존경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이 본래 공적(空寂)하여 일체의 형상이나 모습은 다 헛된 것이니 형상을 취하지 말라. 만일 부처라는 견해나 법이라는 견해를 일으키거나 불·보살 등의 형상에 존경심을 낸다면 스스로가 중생으로 떨어진다. 만일 바르게 알려고 한다면 온갖 형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된다. 다시 다른 말이 없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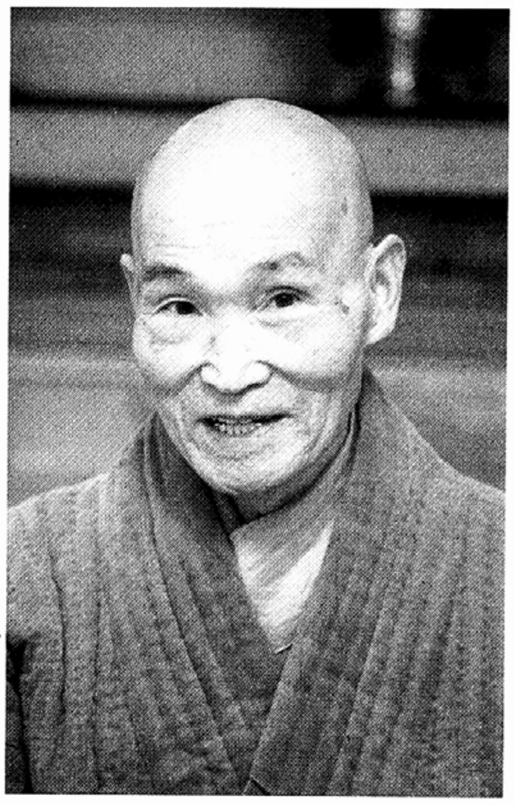
큰 스님과의 대화

청화스님

곡성 성륜사 조실

기본적인 출가수행자의 계율이 오후불식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취침할 때까지 눕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묵언하면서 하루 한끼니만 먹는 일종식으로 일체 눕지않고 참선하며 앉아서 잠을 자는 장좌불와(長坐不臥)를 40여년 지켜온 선승 청화스님(곡성 성륜사 조실). 보통사람의 눈에는 고행으로 보이는 그 생활이 편해서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라는 스님은 이제는 몸뚱이도 쇠약해지고, 앉으나 서나 공부에 망상도 별로 나올 때가 아니고 해서 원칙은 세워놓고 있으나 고집하지는 않고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안거와 포교로 3년을 보내고 성륜사 조선당(祖禪堂)에서 주석하고 있는 스님을 만나 살아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물음인 생명의 실상과 우주과학시대 한국불교의 향방에 대해 들었다.

"일체 존재는 한 생명체"



· 1923년 生
· 1947년 백양사 운문암에서 금타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
· 40여년을 토굴수행 장좌불와 정진
· 85~95년 곡성 태안사 조실
· 95~99년 美 팜스프링 금강선원 주석
· 현재 곡성 성륜사 주석

—21세기는 시간의 속도를 짐작하기 어렵고 과학만능의 치달음 속에서 무섭게 변한다는 고백을 하며 살게됩니다. 이같은 우주 과학시대의 참다운 종교는 어떠해야 하는지요.

▲'종교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요, 과학없는 종교는 맹인이다.' 이 말은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더라도 합리적인 도리에 입각하여 믿어야 하지, 불합리한데도 분별없이 전통적인 권위나 인습적인 법집(法執)을 답습한다면 참다운 종교가 못됩니다. 아집 법집을 여의는 것이 참다운 과학이요 진정한 종교입니다. 이런 과학정신이 기본이 되어서 현대물리학이 나온 것 아닙니까. 또 아인슈타인은 '우주적 종교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교는 불교다. 또한 현대과학이 결(缺)하고 있는 것을 메꾸어 주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불교다'고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불교를 진정으로 아는 분이라고 봅니다. 우주 과학시대의 종교는 철학을 날줄로, 과학을 씨줄로 서로 보완하고 조화하는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종교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심에 대해서 들려주시지요.

▲신심(信心)은 마음을 활짝 열고 천지와 나와 둘이 아니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반야 지혜를 믿는 것입니다. 물질은 곧 의식이요 생명이므로 지구도 태양도 다같은 생명이며 태양은 관음보살의 화신이요, 또 대세지보살과 문수보살은 지혜의 화신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이대로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가르침을 조그마한 자기 생각으로 좁혀서는 안됩니다. 원융무애한 생명을 구분짓고 가로막는 망념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삼천대천 세계가 바로 부처님이거니 5척남짓한 이 몸뚱이에 들어있는 의식만 생명이 아니라 산하대지 두두물물이 한결같이 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못열려서 나로 보이고 너로 보이고 남으로 보이고, 그 무엇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기복불교의 폐단으로 우선 꼽는 것이 일신의 안위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불교적인 행태이기도 하지않습니까.

▲우리 중생들은 현상적인 모양(相)만 보기 때문에 그 모양만 실상 실제인 것이고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보세요. 남자같이 생기고, 또는 여자같이 생기고, 잘 나고 못나고 하는 그런 현상적인 상만 사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자의 밝은 지혜로 볼 때는 사실 그런 상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런 상은 본래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번뇌에 가리어서 없는 것을 있다고 봅니다. 현상적인 모든 것은 사실상 허망 무상한 것입니다. 고유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상대 유한적인 인간의 업장으로 갇혀있을 뿐입니다.

—종교는 생명의 문제에 직결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참 생명은 어떤것입니까.

▲생명은 어떻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본래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자취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자취가 없고 개나 소나 돼지나 그러한 다른 동물의 생명도 자취가 없습니다. 나무 같은 상, 풀 같은 상만 우리 중생의 제한된 안목에서 보이는 것이지 그러한 나무나 풀도 역시 생명 자체는 조금도 자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 생명 자체는 우리 인간의 몸 속의 신장에나 또는 뇌 속에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에 생명이 가득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이나 물이나 흙이나 모두가 다 생명이 거기에 충만해 있습니다. 이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생명이라 하는 우주의 실상 그 생명은 바로 우주에 끝도 갓도 없이 충만해 있습니다. 무량 무변하게 충만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 우주라는 것은 사실 생명 뿐인 것입니다. 때문에 내 생명 네 생명이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김 아무개한테 있는 생명이나 박 아무개한테 있는 생명이나 똑 같은 생명입니다. 이런데서 우리가 업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명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생명은 우리의 마음이요 중생이요 부처입니다. 심불급중생 시삼무차별(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이라. 우리 마음이나 중생이나 또는 부처나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입니다.

하나의 생명 이것은 무슨 원리나 또는 가치나 그런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부처님 그럽니다. 따라서 천지 우주가 오직 동일한 생명이므로 성품은 모두 같은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참다운 불자이며 최상의 공덕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 우리 마음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생명에는 자비나 지혜나 일체 공덕이 다 들어 있습니다. 행복도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생명을 낭비하는 것은 손실을 떠나 큰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되는데요.

▲우리 중생의 허물이 무엇인고 하면 모양 이것은 가짜이고 허망한데 그것을 구하다가 우리 소중한 인생이 다 판나 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부자면 부자된 만큼, 감투가 높으면 높은 만큼 공부에는 손해입니다.

또 중생의 망상 가운데 주의할 것은 무슨 일을 했으면,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연이 합해서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어느 개인의 개별적인 자기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관자는 있습니다. 인연이 합해지면 잠시간 무엇이 이루어지고 인연 화합이 안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인 것이지요.

—생명은 모두를 갖추고 있고 무한한 것이라면 죽은 영가에 대해서도 궁금해집니다. 특히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동참하는 기도가 영가천도일 것입니다. 더구나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 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 집을 다스림)·치국(治國: 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 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 건강과 장수)·둘째 부(富: 부와 귀)·셋째 강녕(康寧: 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 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 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본포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

효성양방·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안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현재 380억원을 투자하여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자금과 불사(佛事) 시주금으로 마련한 4백억을 투자하여 건축허가분 실버타운 300여실을 증축하고 한국목탑(木塔) 형식의 3층 법당(150평규모), 세계 최대규모인 108미터 열반와불(臥佛)상과 10만위(位)의 영골(靈骨)을 모시는 영묘사리탑(靈廟舍利塔), 열반 와불의 테마공원 등 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효성양방·한방병원 부분전경

정신병, 신경성 질환, 당뇨병, 중풍(와사풍 포함), 관절염, 위장병,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완치될 때까지 무료로 치료해(약 1개월안에 치료 가능, 입원실 사용, 식대 각자 부담) 드리고자 하오니, 전국의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의료법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 8—4

◆ 모든 질병과 성인병은 의혈만 잘 풀어버리면 완벽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 스님들 주변에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무료치료의 인연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